

<p>Since the beginning of chapter 5 of his first letter to Timothy, Paul has addressed various group needs within the congregation. These have consisted of different age and gender groups, the widows and the elders. Now, lastly, as we come to chapter 6, he considers the special needs of slaves within the church (vv.1-2). Paul describes this group as “all who are under the yoke of slavery”. By calling slavery a yoke Paul recognises that the slaves’ existence is a burdensome and negative one which is not theirs by choice. But he does not recommend rebellion as the way out of their condition. (In 1 Corinthians 7:21 he encourages them to take their freedom if it is made available). Instead, he advocates a positive attitude of respect towards their human masters, based on Christian beliefs and values (e.g. Ephesians 6:5-9).</p>	<p>디모데에게 보낸 그의 첫 편지의 5 장의 시작부터, 바울은 회중 안에서 다양한 그룹이 필요로 하는 바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는 다른 연령과 성별 그룹, 미망인들과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 장에 이르러서, 바울은 교회 안의 종들에 대한 특별한 필요에 대해 사려합니다(1-2 절). 바울은 이 그룹을 “멍에 아래 있는 종들”로 묘사합니다. 종들을 멍에로 호칭하며, 바울은 종들의 존재가 자신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닌, 부담스럽고 부정적인 것임을 인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처한 상황을 벗어날 방법으로서의 저항을 권유하지는 않습니다.(고전 7:21 에서는 만일 가능하게 된다면 그들이 자유를 찾기를 권유합니다). 대신에, 그는 그들의 지상의 주인을 향한 공경의 긍정적인 태도를 주창하고, 이것은 크리스천의 믿음과 가치에 근거한 것입니다.(예, 엡 6:5-9).</p>
<p>Slaves formed a large part of the population of the Roman empire (on some estimates one in every three persons or more was a slave), and were obviously well represented in the membership of the Christian communities. Clearly the gospel had a special appeal to those without rights and with only the basics of existence (1 Corinthians 1:26-29). Slavery in the Roman world was different in many respects from the institution that later developed in Europe and America. In the ancient world slavery generally was not based on the colour of a person’s skin. This is in contrast with the inherently racist premises of slavery in the West, which denied the full dignity of people of colour as human beings made in the image of God. Also, in the ancient world many people were enslaved because of economic necessity. In some cases slavery was voluntary – people sold themselves as slaves in order to clear their debts, or in order to learn a trade. In addition, because slaves were members of a household, most of them had a fair degree of security, with opportunities for advancement. Most important of all, slavery was not necessarily permanent, because there were a variety of ways for slaves to win or buy their freedom.</p>	<p>노예들은 로마제국 인구의 큰 부분을 차지했으며 (일부 추정의 경우, 3 명중 1 명 또는 그 이상이 노예였다라는), 명백히,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에 해당되었습니다. 분명하게, 이 복음은 권리가 없고 단지 기본적인 생계만이 있었던 그들에게 특별한 매력이 있었습니다(고전 1:26-29). 로마의 노예는 차후에 유럽과 미국에서 발전된 제도와는 많은 면에서 달랐습니다. 고대에는 노예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피부색에 기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는 하지만, 유색 인종의 완전한 존엄성을 부정하는, 노예에 대해 본질적으로 인종 차별적인 서구의 전제와는 대조적입니다. 또한, 고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일부 경우는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그들의 빚을 갚기 위해, 또는 교역을 배우기 위해 스스로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게다가, 노예는 집안의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향상될 여지와 함께, 그들 대부분에게 꽤 괜찮은 정도의 안전이 주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노예는 꼭 영구적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유를 얻고 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p>
<p>Unlike marriage and parenting which are creational institutions, such practices as divorce and slavery belong to a fallen world in which men and women can exploit one another mercilessly. The Christian faith addresses people where they are to be found, without excusing their mutual wrongdoing. Paul did not recommend political action for the slaves, since such uprisings had been tried without success and with great loss of life. Instead, he knew that the gospel was the power of God to change people in their deepest values and attitudes. Paul’s letter to Philemon is an actual example of how this change would take place, as Christian masters began by treating Christian slaves as brothers and human equals, and by implication choosing to set them free. As a result of the gospel working in people’s hearts, the quality of their relationships would be changed, and a new society of justice emerges. This is what in fact happened in the first centuries of the Roman empire.</p>	<p>창조적인 제도인 결혼과 육아와는 다르게, 이혼과 노예 제도와 같은 관행들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무자비하게 이용하는 타락한 세상에 속한 것 입니다. 크리스천의 믿음은 그들 서로간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변명을 동반하지 않고도,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을 짚어줍니다. 바울은 노예를 위한 정치적인 행위를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러한 반란이 시도되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생명의 큰 손실을 초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에 그는 복음이 그들의 깊은 가치관과 태도에 있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임을 알았습니다. 빌레몬에게 쓴 바울의 편지는 크리스천 주인이 크리스천 종들을 형제와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하기 시작하고, 암묵적으로 그들을 자유하도록 택하심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실제 예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는 복음의 결과로, 그들의 관계의 질은 변화되어질 것이며, 새로운 정의 사회가 나타납니다. 사실 이것이 로마 제국 시대의 첫 세기에 일어난 일입니다.</p>

<p>1. <u>When Your Boss is a Pagan</u>                  Even though slavery has been largely abolished in the West, what the Bible says to slaves is still relevant today. To begin with, the term Paul used for “slave” (doulos) can also be translated “servant” or “bondservant” – and so it covers a wide range of work situations. Just as the relationship between master and slave was the primary economic relationship in the ancient world, so the relationship between boss and employee is the primary economic relationship in the world today – and so we should apply the biblical teaching accordingly. Furthermore, it may fairly be said that many modern workers are “under the yoke” in that they have to slave away at jobs which are stressful or boring, often working long hours and enduring difficult conditions. Many working holiday visa students find themselves in this situation.</p>	<p>1. <u>여러분의 상사가 이교도인 경우</u>                  서구 사회에서 노예 제도가 대부분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종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종”으로 사용한 단어는 또한 “하인” 또는 “노복”으로 번역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범위의 근로 상황을 다룹니다. 고대의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주로 경제적 관계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의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는 주요한 경제적 관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에 맞춰 성경적인 가르침을 적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많은 현대 직장인들은 스트레스가 많고 지루한 일들을 노예처럼 일해야 하는 “멍에 아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학생들을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p>
<p>Paul says, “All who are under the yoke of slavery should consider their masters worthy of full respect, so that God’s name and our teaching may not be slandered” (v.1). In today’s context it means that every boss deserves a full-day’s work from every Christian employee. Paul has used the word “respect” or “recognition” before in 1 Timothy 5:3 in relation to the kind of honour or recognition that Christians ought to show to godly widows. In 1 Timothy 5:17, he applies it to the kind of respect Christians should give to good ministers. Masters deserve the same kind of treatment, even if they are not Christians.</p>	<p>바울은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1 절)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맥락에서 이는 모든 상사는 모든 크리스천 부하 직원이 하루 동안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해주기를 바랄 만한 자격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공경” 또는 “존대”라는 단어를 먼저, 디모데전서 5:3 절에서 크리스천이 믿음의 미망인들에게 보여줘야 할 일종의 공경 또는 존대와 연계하여 사용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17 절에서, 그는 이것을 좋은 목회자에게 크리스천이 드러야 할 공경의 유형으로 적용합니다. 주인은 심지어 그들이 크리스천이 아닐지라도, 같은 유형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p>
<p>When it comes to honouring your boss, the Bible does not grant any exceptions for bad work situations. Peter was even more direct in his first letter: “Servants, submit yourselves to your masters with all respect, not only to those who are good and considerate, but also to those who are harsh” (1 Peter 2:18). Respect is something every Christian worker owes to every boss, even in the very worst working environments.</p>	<p>여러분의 상사를 공경하는 것에 관한 한, 성경은 형편없는 근로 상황에 대한 어떠한 예외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첫 편지에서 이에 대해 심지어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자들에게도 그리하라”(벧전 2:18). 공경은 심지어 아주 최악의 작업 환경에서조차, 모든 크리스천 일꾼이 모든 상사에게 빛지고 있는 것입니다.</p>
<p>The word “consider” is also important: slaves are to “<u>consider</u> their masters worthy of full respect”. This clearly allows for the possibility that someone’s master may not actually be worthy of respect. He may be incompetent. He may be unreasonable or overbearing. Nevertheless, he must be considered or regarded as worthy of respect. This is because God has placed him in his position of authority. To show honour to your earthly master is to show honour to your heavenly Father. Furthermore, Paul says that Christians should show “full” respect. It doesn’t say that workers need to show respect only when their bosses are in the office. It does not give employees the right to gossip about management as long as they are in the lunch room or out on a break when they do it. It does not even allow Christians to complain about their jobs when they go back home. No, the Bible says that workers should “consider their masters worthy of full respect”.</p>	<p>“여기다”라는 단어 또한 중요합니다: 노예는 “그들의 주인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겨야 합니다”. 이는 명백하게 누군가의 주인이 실제로는 존경할만 하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합니다. 그는 무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부당하거나 고압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경할 자로 여겨지거나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권위를 가질 자리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지상의 주인에게 공경을 보이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존경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크리스천은 “온전한” 공경을 보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부하 직원은 그들의 상사가 사무실에 있을 때에만 공경을 보여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구내 식당에 있는 동안에, 또는 쉬는 시간 동안에는 경영진에 대해 험담을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크리스천이 집에 돌아가 그들의 일에 대해 불평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니오, 성경은 일꾼은 “그들의 주인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p>

<p>2. <u>Work Before a Watching World</u> Showing full respect is necessary to the missionary purpose of the church. Paul gives two reasons why Christians need to respect their masters – “So that God’s name and our teaching may not be slandered”. If Christians are poor workers, then God and his gospel will be brought into disrepute.</p>	<p>2. <u>감시하는 세상 보다 여러분이 할 일에 중점을 두는 것은 온전한 공경을 보이는 것은 교회의 선교 목적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바울은 크리스천이 왜 그들의 주인을 공경해야 하는 지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크리스천이 형편없는 일꾼이라면, 하나님과 그의 복음에 오명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u></p>
<p>God cares about his reputation. He is concerned about what outsiders think of Christianity. You will remember that in the qualifications for elders, Paul says that they “must have a good reputation with outsiders” (1 Timothy 3:7). And last week you will remember that he said that the church family should provide for their widows “so that no one may be open to blame” (1 Timothy 5:7). In short, God wants his people to be careful how they are coming across. He wants them to have the respect and admiration of their neighbours, including their co-workers. The way a Christian behaves on the job is a major part of his or her testimony.</p>	<p>하나님께서서는 그의 명성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는 외부인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해 염려하십니다. 여러분은 장로들의 자격요건에 있어, 바울이 그들은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할지니”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딤후 3:7). 그리고 지난주, 여러분은 그가 교회 가정은 그들의 미망인을 돌보아야 하며, “책망 받을 것이 없게 하라”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딤후 5:7).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지 대해 주의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동료 직원을 포함한 그들의 이웃에 대해 공경과 존경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일자리에서 크리스천이 행동하는 방식은 그 또는 그녀가 증거함의 주요한 부분입니다.</p>
<p>Two things are at stake every time a believer clocks on for work. The first is “God’s name”, which stands for God’s character – his holiness, love, justice, and all the rest of his divine attributes. Since God’s people bear God’s name, the way they work is a reflection on God himself. So every time a Christian makes a delivery, turns in a report, hands in an expense account, makes a decision at a board meeting, pushes to get a sale, takes care of a patient, mops the floor, marks an exam, or decides it is time to leave work and go home, he or she is making some kind of statement about who Jesus is. A Christian who gives anything less than the very best effort puts Jesus Christ in a bad light.</p>	<p>믿는 자가 직장으로 향할 때 마다,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인 그의 경건함, 사랑, 공의 그리고 다른 모든 그의 신성한 속성들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당하기에, 그들이 일하는 방식은 하나님 자신의 반영이 됩니다. 때문에 크리스천이 배송을 할 때, 보고서를 제출할 때, 경비 지출 내역서를 제출할 때,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릴 때, 판매를 강요할 때, 환자를 돌볼 때, 바닥을 걸레로 닦을 때, 시험을 채점할 때, 또는 일을 마치고 귀가할 시간을 정할 때 마다, 그 또는 그녀는 예수님이 누구신 지에 대한 일종의 진술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최선의 노력보다 덜 노력하는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릇되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p>
<p>The other thing that is at stake every time a Christian shows up for work is “our teaching”,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teaching is that God sent his Son Jesus Christ to save sinners by dying on the cross. Everyone who accepts this teaching receives eternal life. But whether people will accept it or not partly depends on the way Christians handle themselves on the job. So every Christian who works in a non-Christian environment is a missionary. To Titus, Paul wrote this, “Teach slaves to be subject to their masters in everything, to try to please them, not to talk back to them, and not to steal from them, but to show that they can be fully trusted, so that in every way they will make the teaching about God our Saviour attractive” (Titus 2:9-10).</p>	<p>크리스천이 일하러 갈 때마다 중요한 다른 한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음입니다. 이 교훈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던 그렇지 않던지 간에 어느 정도는 직장에서 크리스천이 자신 스스로를 다루는 방식에 달려있습니다. 때문에 비 기독교적 환경에서 일하는 모든 크리스천은 선교사입니다. 바울은 디도에 편지하기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흠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딤후 2:9-10).</p>
<p>A wonderful example of how to “make the teaching about God our Saviour attractive” is the little slave girl who served in Naaman’s household. Naaman was a valiant general, the commander of the Syrian army. He had great wealth, but he also had leprosy, and this was his torment. One of Naaman’s servants was a young Jewish girl who had been captured during the wars and carried back to Syria as a slave. She had heard about her master’s</p>	<p>“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방법 중 가장 훌륭한 본보기는 나아만의 가정의 어린 계집 종의 예입니다. 나아만은 시리아 군대의 지휘관인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를 가졌지만 또한 문둥병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그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나아만의 종들 중에는 전쟁 중 포로가 되어 시리아에 종으로 잡혀왔던 어린 유대인 소녀가</p>

<p>disease. One day as she went about her duties she confided to her mistress, Naaman's wife, "If only my master would see the prophet who is in Samaria! He would cure him of his leprosy" (2 Kings 5:3). Her words got back to Naaman and he went off to Samaria to find a cure. Not only did God's prophet, Elisha, give him a cure, but he also led him to faith in the living God. This all came about because the little slave girl was an on-the-job evangelist. She wasn't pushy. She didn't go around pointing out people's sins. Instead, in the most natural way, as she went about her daily job, she gave a testimony to God's saving power. And God used her testimony to bring her master to saving faith.</p>	<p>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인의 병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그녀는 맡은 일을 시작하면서, 그녀의 여주인인 나아만의 아내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왕 5:3)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나아만에게 전달되고, 그는 치료를 위해 사마리아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그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그를 이끌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난 것은 이 어린 종이 자신의 일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강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마치 그녀가 하루 일을 시작했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힘을 간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간증을 그녀의 주인이 구원의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사용하셨습니다.</p>
<p>In the same way, every believer is called to be a witness on the job, and not a closet Christian. Be sure that your employer and workmates know that you are a Christian, so that your work will be evaluated in the context of your faith. When you are offered a promotion, consider the implications it will have for your family and ministry in the church. When you talk about your weekend, mention what happened at church the day before. When people are talking about some current issue at lunchtime, give an answer from the biblical point of view.</p>	<p>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믿는 자들은 벽장 속의 크리스천(다른 이들에게 믿음을 나누고 전파하는데 소극적인)이 아니라 일터에서 증거하도록 불리워졌습니다. 여러분의 고용주와 직장 동료가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확실히 하시고, 그런 즉,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의 믿음의 맥락에서 평가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승진 기회가 주어질 때,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사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려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말에 대해 이야기 할 때, 그 전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언급하십시오.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최신 화제 거리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성경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십시오.</p>
<p>A Christian who is committed to reaching the workplace for Jesus Christ will find plenty of natural situations in which to speak about spiritual things. Your co-workers may not be very interested in your Christianity. On occasion, they may even ridicule your faith. But when the day of trouble comes, to whom will they go for advice and counsel? When they are confronted with death, to whom will they go for comfort? And when the Holy Spirit awakens them to their spiritual need, to whom will they go for the words of life? They will turn to the man or woman who has loved them with the love of Christ, maybe for many years. Then you will be able to share the good news about Jesus Christ, so that they can know his love, too.</p>	<p>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직장에 전념하는 크리스천은 영적인 사안들에 대해 이야기 하게 될, 수 많은 자연스러운 상황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기독교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그들은 심지어 여러분의 믿음을 조롱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의 날이 올 때, 그들은 누구에서 조언을 받고 충고를 얻겠습니까? 그들이 죽음과 맞닥뜨릴 때, 누구에게서 안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영적인 필요에 일깨우실 때, 누구에게서 생명의 말씀을 얻겠습니까? 그들은 어쩌면 수년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 왔던 남자 또는 여자를 의지할 것입니다. 그런 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나눌수 있게 될 것이며, 그들 또한 주님의 사랑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p>
<p>3. <u>When Your Boss is a Believer</u>          What if your boss is a Christian already? How is the work relationship different when both the manager and the employee are servants of the Lord Jesus Christ? Apparently, some Christian slaves were starting to be disrespectful to their masters. They thought that they could take advantage of them because they were brothers in Christ. People often treat their own family members worse than they treat guests. "It's only my brother", they say. "He'll get over it." Some Christian workers take advantage of Christian bosses. They assume they are entitled to special favours because they are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They know their boss will be more forgiving (after all, he is a Christian!) so they take liberties</p>	<p>3. <u>여러분의 상사가 믿는 자일 때</u>          만일 여러분의 상사가 이미 크리스천이라면 어떨까요? 상사와 부하 직원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일 때, 직장 내 관계는 어떻게 다를까요? 명백히, 일부 크리스천 종들은 그들의 주인에게 무례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라는 이유로 이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가족 구성원을 손님을 대하는 것보다도 못하게 다루곤 합니다. "그는 그저 내 형일 뿐이야"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는 이를 이겨낼거야." 일부 크리스천 일꾼들은 크리스천 상사를 이용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특혜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사가 좀</p>

<p>they would never dream of taking in a secular workplace.</p>	<p>더 관대할 것을 알기에 (어쨌든 그는 크리스천 이니까!), 세속적인 직장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자유분방함을 누립니다.</p>
<p>Sometimes working in a Christian organisation (such as a church, Christian school or Christian not-for-profit) can prove quite unpleasant. Everyone has high expectations for how everyone will behave. But eventually someone does something that does not quite measure up to Christian standards, and then everyone else gets offended. At the same time that some people take advantage of their co-workers because they are Christians, others forget that the Christians they work with are human beings – and therefore sinners. As a result of all this, the work environment in some Christian businesses is as toxic as anything in secular businesses. Christian organisations ought to be the very best places to work, and they can be, provided the workers behave like Christians. The distinguishing mark of Christian fellowship is love. Therefore, Christians in the marketplace should treat one another with deep affection. They must serve their brothers and sisters “even better, because those who benefit from their service are believers, and dear to them” (v.2). The word translated “service” in this verse is used in an unusual way here. It usually describes a donation given by some wealthy benefactor. Therefore, some scholars conclude that “service” is something slaves receive from their masters. But Paul’s point is the opposite. Through humble service, Christian slaves even become the generous benefactors of their Christian masters. The reason these slaves are so generous is that their masters are so “dear to them”. The word translated “dear” is the same word Paul used when he told Philemon to welcome Onesimus “no longer a slave, but better than a slave, as a <u>dear</u> brother. He is very dear to me but even dearer to you, both as a man and as a brother in the Lord” (Philemon 16). Masters should remember the love they have for their servants because they belong to Christ. In the same say, Christian bosses ought to have real affection for the believers who work for them.</p>	<p>때때로, 기독교 단체에서 일하는 것(예를 들어 교회, 기독교 학교 또는 크리스천 비영리 단체와 같은)은 상당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들이 어떻게 행동할 지에 대해 높은 기대치를 가집니다. 그러나 결국 일부 사람은 크리스천 기준에 상당히 부응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다른 이들은 이를 불쾌하게 여깁니다. 동시에 어떤 이들은 그들의 동료 직원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이에 편승하고, 다른 이들은 그들이 함께 일하는 크리스천이 인간이며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 버립니다. 이 결과로, 일부 기독교 관련 사업의 근무 환경은 세속적인 사업의 것만큼 독성이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는 근무자들이 크리스천처럼 행동하는, 일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곳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단체를 구별 짓는 표식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상업 영역의 크리스천들은 깊은 애정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형제 자매를 섬겨야 하며,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2 절). 이 구절에서 “받는”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여기서 흔치 않은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통상적으로 어떤 부유한 후원자의 기부를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일부 학자들은 “받는 것”은 종들이 그들의 주인에게서 받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점은 그 반대입니다. 겸손한 봉사를 통해, 크리스천 종들은 심지어 그들의 크리스천 주인들의 관대한 후원자가 됩니다. 이러한 종들이 이렇게 너그러운 이유는 그들에게 그 주인들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소중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환영하기를 말할 때 사용했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돌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라 (몬 16 절). 주인은 자신들의 종들에 대한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주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크리스천 상사들은 그들의 믿음이 있는 부하 직원들에 대해 진정한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p>
<p>What the Bible says about working for God in the marketplace is not easy teaching. A Christian in a difficult work situation may find some of these biblical principles very hard to put into practice. Yet there are two compelling reasons to work in a way that pleases God. The first is that God is your Master. This is the lesson Paul taught the Ephesian Christians in an earlier letter: “Slaves, obey your earthly masters with respect and fear, and with sincerity of heart, just as you would obey Christ. Obey them not only to win their favour when their eye is on you, but like slaves of Christ, doing the will of God from your heart. Serve wholeheartedly, as if you were serving the Lord, not men.....” (Ephesians 6:5-7). If a slave belongs to Christ, then Christ is his ultimate Master. To serve an earthly master is actually one way to serve God himself. In other words, every Christian is on God’s payroll.</p>	<p>상업 영역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쉬운 가르침은 아닙니다. 어려운 작업 환경에 있는 크리스천은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들 중 일부는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방식으로 일하기 위해서, 이에 설득력있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에베소인들을 위한 초기의 편지에서 바울은 이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종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엡 6:5-7). 만일 종이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면, 그리스도는 그의 궁극적인 주인입니다. 지상의 주인을</p>

	<p>섬기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급여 대상자 명단에 있습니다.</p>
<p>Not only is God your Master, but he has also become your servant, even your slave. The Bible tells us that God, the Son, Jesus Christ “made himself nothing, taking the very nature of a servant” (Philippians 2:7). The word for “servant” in Philippians 2:7 is the same word used for “slave” in 1 Timothy 6:1 (doulos). Jesus Christ became a slave when he became a man. He became <u>our</u> slave. He obeyed the law of God perfectly in our place – something we could never do because of our sinful human nature. He suffered the penalty we deserved – he died in our place. He paid for our sins when he died on the cross. While it is one thing to obey a master, it is another thing to obey a master who is so generous that he has willingly served as your slave. Since Jesus Christ has already done more for us – infinitely more – than we could or will ever do for him, we should at least do all that we can for him, and we should do this at our work as much as anywhere else.</p>	<p>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되실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여러분의 하인이 되셨으며, 심지어 종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빌 2:7)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7 절의 “종”이라는 단어는 디모데전서 6:1 절의 “종”(doulos)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 오셨을 때 종이 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u>우리의</u> 종이 되셨습니다. 죄스러운 인간 본성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었으나, 그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벌로 고통 받으셨습니다 –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는 우리의 죄를 갚으셨습니다.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과, 너무나 관대하여 기꺼이 여러분의 종으로 여러분을 섬겼던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또는 우리가 그를 위해 행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기에,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하고, 그 밖의 다른 곳에 못지 않게, 우리의 직장에서 이를 행해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u>아멘</u></p>

Amen

Prepared by Rev. Grant Lawry, Canterbury Presbyterian Church, Canterbury, Melbourne, Australia for use of the Canterbury congregation.